

2011 SEPT-OCT Vol.89 09-10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iBrCT

인하대병원 유방암진료팀

INHA Breast Cancer Care Team

여성암센터
Women's Cancer Center



JCI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1. 09+10

CONTENTS

Sept. Oct Vol. 89

04	행복을 전하는 글	위안
05	Well-being Report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집이 다양해지고 있다???
08	암! 함께 이겨내요	인하대병원 유방암진료팀
11	의학정보 1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14	의학정보 2	유방재건수술
16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암 환자의 운동 요법
18	의료봉사	몽골_ 미소를 잃지 않는 훌륭한 무대의 감동들 우간다_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 를 보았습니다
24	희망천사 릴레이	자원봉사자 서명순 씨의 희망 이야기
26	글이 머무는 풍경	서로 큰 힘이 되어주는 쌍둥이 간호사 자매
27	감사의 편지	몽골에서 보내 온 감사의 편지
28	봉사수기	2011년 하계 학생자원봉사활동 참가 수기
29	병원돋보기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인하대병원 외국인 환자식사
30	특독약물상담	결핵에 보약? 평소식사면 충분!
32	협력병원탐방	연세 이명래 내과의원 / 이화 웰 붐 소아청소년과의원
33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38	알립니다	언론보도 / 인사동정 / Global Inha /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 암 진료시간표



위안

- 정호승 '위안' 중에서 -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 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한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는 없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

_ Smart House

한옥바람, 땅콩집, 스마트하우스까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집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한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 집은 물, 돌, 흙 등의 자연과 건축이 기묘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움에 우리는 모두 감탄을 자아냈다. 또 '개인의 취향'에서는 북촌 마을의 한옥집이 등장하여 불편하기만 할 것 같은 한옥의 이미지를 바꾸어주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히트상품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땅콩집' 역시 방송에 소개된 이후 집짓기 열풍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변화하는 요즘의 주거 트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주거선택 기준이 삶의 질 중심으로 달라지면서 대량공급시대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또 고령인구의 증가, 세대구성의 변화, 웰빙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자연을 담은 주거 트렌드가 대세다. 더불어 지난해 여름 양재동 우면산 산사태 이후 '안전' 또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또 요즘 주거문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최첨단을 동시에 반영하려고 한다. 풍요와 결핍의 공존이라고나 할까? 주거 서비스는 최첨단이면서 자연만큼 위대한 건축은 없다는 말이 실감나게도 또 자연친화적인 주거를 으뜸으로 꼽는다.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라이프스타일만큼이나 주거트렌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한옥, 우리 삶을 파고들다

햇빛과 바람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한옥의 참 의미는 충분하다. 자연을 벗삼아 주거한다는 차원을 넘어 알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과학적인 한옥이 불편함을 탈바꿈하면서 도시형 생활 한옥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 지난 9월초 '2011 서울 국제건축박람회'에서 국내 최초로 한옥에 에너지 절감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그린 한옥'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렇듯 건강한 과학적 한옥은 인간관계의 소외, 자연과의 단절, 전통의 부재로 평가되는 지금의 주거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아파트로 들어온 한옥은 나무, 황토와 같은 자연 친화적 자재를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거실과 발코니 공간에 마당 개념을 도입했다. 대청마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화장실이 멀고 부엌과 거실이 분리되어 불편한 한옥의 단점들을 없앴다. 우아하고 넉넉하며 환경 친화적인 한옥의 장점을 살리고 생활의 편리함이 강점인 아파트의 이점도 취하면서 한옥과 아파트의 발전적인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주거 문화의 진화라고도 볼 수 있다. 자칫 흥내만 내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한옥의 콘텐츠를 아파트와 결합해 한국인의 주거공간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땅공집, 뭐야????

40대의 두 가정의 흥미로운 의기투합으로 지어진 땅공집은 방송에 소개되면서 집짓기 붐이 일고 있다. 땅공집은 하나의 필지에 적당한 크기의 주택 두 채를 붙여 짓고 그

만큼 마당을 더 넓게 확보하여 하나의 마당을 두 가족이 공유하며 살아가는 집이다.

땅공집은 목조주택의 한 형태이다. 목재건축의 장점은 친환경적인 웰빙 공법, 공사기간단축, 냉난방비감소등 평소 단독주택의 단점들로 꼽히던 여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동시에 아파트의 장점인 생활의 편의 또한 담아내고 있다. 콘크리트로 새로 건축한 집은 아토피, 새집 증후군 등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땅공집짓기에는 친환경적 목조자재를 사용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집을 건축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파트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실용적인 집에 대한 현대인의 갈증, 자연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끊임 없이 반영하는 주거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주택시장에서 맹목적인 아파트 쏠림현상을 타개하고 다양한 종류의 주거공간을 제시해 일반인들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는 곳'의 기본 개념에 충실했다는 것에서 땅공집 등장은 새롭다.

스마트 하우스(Smart House)

스마트 하우스는 세컨드 하우스이거나 타운하우스의 주거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몸값도 형태도 '천차만별'이다. 최근 중년 탤런트의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럭셔리함도 놀라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정원이었다. 그의 정원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곳으로 계절에 따라 색다르게

집짓기 놀이(?)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물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나고 콘셉트의 다양화가 강조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집을 내가 직접 짓겠다고 연장을 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또 직접 짓지 않더라도 기본 집짓기 교육을 받는 이들도 상당수다. 나에게 잘 맞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 황토 흙집

친환경 흙집을 통해 생태철학을 배우고 흙집을 손수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과정도 꽤 많다. 흙은 싸고 어디에나 있으며 누구나 다룰 수 있는 재료"이다. 다른 어떤 자재보다 만들어지는 과정, 건축되는 과정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 환경친화적이기도 하다. 황토는 습도 조절이 뛰어나다. 이

조절 능력은 시멘트의 5배나 된다. 이러한 조절 능력은 감기와 잔병치레가 적게 하고 항균효과가 높고 곰팡이가 피지 않는 장점이 있다. 흙집이라고 다 같은 흙집이 아니다. 벽돌을 만들어 쌓는 방법부터 '거푸집'을 세운 뒤 흙을 붓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모양만 흙집인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100년을 살아도 끄떡없는, 목조주택

따뜻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나무를 소재로 하는 목조주택. 공사 기간이 짧고 단열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 콘크리트 집보다 벽을 얇게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집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먼저 목조주택은 한옥도 있고 경량목구조, 중목구조, 통나무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골조만 나무를 사용하는 경량목구조의 목조주택의 장점은 친환경적이

며, 시멘트 독 발산이 없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며, 콘크리트 주택보다 약 3배 정도의 단열성능이 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근대화의 상징, 친환경으로 변화 시도하는 시멘트 집

사실 시멘트는 근대화의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시멘트의 독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새집 증후군의 원인은 시멘트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뿜는 독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아토피나 호흡기 환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물질이다. 시멘트는 강알칼리성으로 이 독성이 문제인 셈이다. 이렇듯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은 3년이라는 경화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써 튼튼한 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최근 친환경적인 공법인 박테리아 천연시멘트가 발명되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시멘트의 변신도 기대된다.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흔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인 별장의 경우 규모가 크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원주택 역시 부유층이 아니면 꿈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소형과 상품화된 이동식 주택인 스마트 하우스는 중상층에게도 별장의 꿈을 실현하게 해주었다.

스마트 하우스'의 특징은 고급화된 디자인과 모듈화 되고 스펙화된 규격품 생산, 대량생산체제 등이다. 기존의 주택모양을 보고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건축 시간도 짧은 편이다. 기존처럼 현장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닌 자동화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한다. 차별화된 디자인,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 대량생산 공급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자연 속의 작은 공간을 연출한다.

마당이 있는 집 - 테라스하우스 뜬다

얼마 전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속의 주인공 마혜리의 집을 떠올려 보자 바로 그 집이 테라스하우스이다.

마당을 갖춘 집, 베란다에 정원을 꾸미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아이템으로 건축된 것이 테라스 하우스이다. 베란다와 테라스의 구분, 그것은 땅을 마당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다. 엄밀히 따지면 아파트의 1층에 꾸며진 것은 테라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베란다하우스라 해야 정확할 듯싶다. 어쨌든 테라스하우스는 새로운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에 살면서도 테라스를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어 단독주택 마당이 부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최근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었다고 한다. 요즘 아파트 광고가 텃밭 등 "농부"개념을 강조한 것을 봐도 얼마나 주목받는지 짐작된다.

미래의 주택은 집 안으로 자연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많아짐과 동시에 인간이 직접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질 것이라고 한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테라스 하우스는 텃밭과 정원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에 잘 맞아 떨어진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도 테라스하우스 공급이 계속 될 예정이어서 주거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내 집은 내 맘대로', 맞춤형 주택

자신의 집 구조와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도 등장했다. 똑같은 구조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방의 개수나 크기, 주방과 거실의 구조 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침실이나 거실, 자녀 공부방 등 내부 구조와 크기를 변경해 전혀 새로운 집을 만들 수도 있다.

가족 형태의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맞춰 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맞춤형으로 내 집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미래에 기대되는 트렌드이다. 아파트에 변화의 바람은 말 한마디에 줄었다 늘었다 하는 '가변형 아파트' 등 그 이상을 뛰어 넘은 기발한 발상들도 더욱 다양해질 듯 싶다.

이 외에도 최근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인 코하우징(Co-housing)이 정원달린 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호인주택 또는 협동주택을 뜻하는 코하우징은 10~40가구 정도의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어 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닳대는 도시, 이들은 전원생활을 원하는 이들에게 또 '미니별장'이 열풍이다. 그래서 요즘 등장한 것이 바로 미니 전원주택이다. 미니 전원주택은 대지면적 330㎡, 건축 연면적 33㎡ 안팎의 소형 전원주택을 말한다. 이런 규모는 건축비 등의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요즘 호부머니가 가벼운 중산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기능, 용도에 적절한 주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는 곳'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전보다는 안전과 인락함이, 혁신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이 공존하는 여러 가지 주거공간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다.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신속” 진료, “감동” 진료 인하대병원 유방암진료팀

INHA Breast Cancer Care Team



글 · 조영업 교수 | 여성암센터장

인하대병원 내 유방암의 진료를 위해 구성되어 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진료팀(INHA Breast Cancer Care Team)”은 약칭으로 iBrCT으로 부르고 있다. 다학제진료를 위해 부정기적으로 유방암집담회를 갖던 것을 2004년부터 매월 2회 정기 유방암집담회를 열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의 견해를 논하고 있던 중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2010년 1월 18일 병원 내 14인의 진료진이 모여 유방암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가상의 모임을 결성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유방암의 진료 관련하여 표준화된 치료로 최상위의 진료를 제공하고, 이로써 유방암환자로 하여금 진료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을 도모하여 인천지역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유방암진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진료과(유방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병리과, 핵의학과) 상호간, 그리고 기타 지원진료과와 핵심진료과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환자의 진료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며, 유방암환자로 하여금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유방암진료팀

| 핵심진료그룹

(유방)외과 : 조영업 교수, 김세중 교수, 김종현 전임의
영상의학과 : 김윤정 교수, 이주원 전임의
종양내과 : 이문희 교수, 임주한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 김현정 교수, 김우철 교수
병리과 : 주영채 교수
성형외과 : 김연수 교수
여성암센터 : 한미숙 간호사(유전상담),
이은미 간호사(유방암등록사업)

| 진료지원그룹

재활의학과 : 김명옥 교수
정신과 : 배재남 교수, 이명훈 전임의
핵의학과 : 현인영 교수
산부인과
간호학과 : 김수현 교수
영양과 : 홍기연 영양사
암진료지원실 : 유미애 간호사

유방암진료팀의 역점사업

유방암환자에 대한 핵심진료과의 정기적인 교류 및 치료전 후 환자에 대한 임상토의를 통해 “신속” 진료와 “감동”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유방암환자 수술을 위한 집담회가 열리고 있으며, 매월 2회 최신지견과 증례토의를 위한 유방암 집담회를 갖고 있다. 진료지원그룹(산부인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유방암전문코디네이터 Nursing Practitioner, 종양전문간호사, 사회사업사, 유전상담가, 치료선행자·환자·그룹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학과 김수현 교수의 지원하에 운동요법과 골건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추가해서 유방암 환자를 위해 책자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뿐 아니라 환우수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여성에 있어 전체 2위의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는 유방암은 국내에서 전체 생존율 85%이상으로 우수한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술 및 항암치료 후 삶의 질과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진료팀에서는 환자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주 교육 내용은 유방암에 대한 이해, 영양관리, 림프부종방지 교육 등이다. 이를 위해 환우 중에서 도우미로 참석하여 실제경험을 들려주기도 한다. 또한 분기당 1회 이상 전체 환우 및 주민을 위해 유방암관련 강좌를 열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은 유방암예방에 대한 홍보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핑크리본의 달’ 로 선정되어 각종 행사가 열리는데 본 진료팀에서 매년 ‘핑크리본국민건강강좌’ 를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진료팀은 각종 연구활동에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 다국가 또는 다기관 임상시험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원이 유전성유방암거점병원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유방암의 경우 약 15%에서 유전을 통해 발생이 가능한 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과 가족의 유전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 유전성 유방암/유전상담 거점병원 지정



유방암 컨퍼런스



암전문의의 건강관리법

많은 암환자를 대하지만 저 또한 암환자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으로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수많은 암의 발생원인 중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적인 요인이 암의 발생요인으로 다수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암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우선 올바른 식사습관을 들겠습니다. '골고루, 제때에, 적당히'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은지 물을 때 저는 우선 답하는 말로 '짜고 탄 것' 을 회피하라는 말을 합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살을 빼려 할 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는 것은 신체의 균형적인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현대인에게서 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금연과 금주는 강조하지 않아도 최우선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가능한 스트레스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여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적당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 사 의 편 지 ♥

조영업 교수님

저희 업자를 위하여 마음써 주시고,
하느님께 받은 달걀트를 치선을 다해 나누어 주신에
감사 드립니다.

하느님의 뜻 아래 교수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생명이 살아나 희망을 갖고 감사함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용기를 갖고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 전하며 앞으로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도구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교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시도록 청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회 김현경 비비안나 수녀 올림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조기진단으로 유방의 절제를 피할 수 있어

유방암은 질병의 초기에 진단하여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성인여성이면 스스로 올바른 자가진찰법을 시행하고, 매년 1회의 정기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영엽 교수 | 외과
 • 전문분야 : 유방, 내분비외과
 • 진료시간 : 여성암센터[월(오전), 화(오전), 목(오전)]
 • 문의 : 외과 ☎032-890-2250

매년 10월이면 핑크리본의 달로 지정하여 유방암의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한 캠페인이 벌어진다.

얼마 전 오우삼 감독의 “적벽대전2”를 관람하면서 감독 특유의 시선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재구성과 새로운 기술을 동원하여 스케일이 커 보이는 영화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삼국지의 인물들을 모두 만날 수 있어, 머릿속은 어린 시절에 조부께서 보시던 책을 함께 읽었던 기억을 더듬기 위해 분주하였다. 영화 속에서 ‘화타’라는 인물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었다. 그가 조조와 연관되어 있고 그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 상기하게 되었다.

화타는 동양의학에서 신의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진단과 치료 중 특히 수술 등의 외과적 치료에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화타가 세상의 평에 대해 겸손해 하면서 역시 의생이었던 자신의 형들에 대해 평했던 적이 있는데 자신의 중형은 질병의 초기에 진단을 하여 쉽게 질병치료를 한다 하였으며, 큰 형은 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

방하는 능력을 갖추어 본인에 비할 수 없는 명이라 칭했다 한다.

현재 의학에서도 이와 같은 평가는 큰 의미가 있다. 이미 질병이 깊어진 상태에서의 진단과 치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대 의학이 많은 발전을 가져 왔으나 현재까지 암의 발생을 차단하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임한다면 ‘암’이라는 공포에서 쉽게 해방될 수 있다. 특히 유방암은 조기 진단을 통해 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방의 절제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유방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성인여성이면 누구나 매월1회 또는 월경 전후에 2회에 걸쳐 스스로 유방을 관찰하고 촉진하여 종괴(덩울)의 유무를 확인하고 매년 1회 의사의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자가진찰이나 의사의 진찰은 종괴의 촉진을 중심으로 피부 또는 젖꼭지 함몰, 유방의 변형 및 월경주기에 따른 멍울의 변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거드랑이와 쇠골(빗장뼈)상부의 림프절을 만져보도록 하

며, 젖꼭지의 분비물도 관찰하도록 해야 한다.

유방암의 기본적인 검사로는 크게 3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유방진찰 및 유방촬영 그리고 유방초음파검사가 바로 그것이다. 방사선학적 검사로 유방촬영술이 많이 사용되며, 매년 정기적인 촬영을 함으로써 유방암의 발생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조기발견에 큰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세침흡입세포 검사를 이용해 비교적 쉽게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조직검사시 호르몬수용체에 대한 면역학적인 검사도 함께 시행되는데 이는 보조적치료법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방진찰

자가진찰법 올바른 자가진찰법을 배워 스스로 한달에 한번 씩 자가진찰을 하여 종괴를 찾는 방법이다. 유방암환자의 75%정도가 종괴를 주스로 내원하며, 그중 75% 정도가 환자 자신이 종괴를 발견함으로써 항상 자신의 유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방이 작고 부드러우며 종괴가 피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가진찰법으로 1cm 정도의 종괴를 찾을 수 있으나, 유방이 단단하고 큰 경우 그리고 종괴가 유방 속으로 깊이 위치하면 2cm 보다도 더 큰 종괴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방자가진찰법은 정기적인 유방암검사를 시행하는 도중 스스로 시행해 보는 보조적인 검사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에 의한 진찰법 숙련된 의사의 진찰은 여성 자신의 자가진찰법 보다 더 효율적이다. 좀 더 작은 크기의 종괴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유방암인 경우는 크기가 작더라도 주위조직과 반응을 하여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경험이 있는 유방전문의의 진찰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동양여성들은 서양여성에 비해 유방의 크기가 작고 유선조직이 많아서 유방촬영을 하면 고밀도 혹은 치밀유방영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종괴가 있더라도 관독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꼭 유방진찰을 같이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고밀도 혹은 치밀유방을 가진 여성들은 더욱 작은 종괴를 찾기 위해서 유방진찰, 유방촬영, 유방초음파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유방검사

유방촬영술 기본적인 유방검사는 유방촬영술이다. 비록 고밀도유방에서는 작은 종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괴형태도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미세석회음영은 초음파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유방촬영을 기본으로 검사하며 보조적으로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치밀유방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여성에서 다수 발견되는 현상으로 건강검진 후 대부분 재검사를 의뢰받게 된다. 이런 것은 디지털 영상을 도입하여 많이 개선되고 있어 인하대병원에서는 디지털맘모그래피를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유방초음파검사 유방촬영을 실시한다고 해도 멍울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유방석회화의 경우에도 멍울과 동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방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이 치밀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는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때 흔히 물혹이 발견될 수 있는데 크기가 작고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두가지 검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MRI 검사나 PET/CT 등의 핵의학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조직검사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직 검사에는

- 1) 절제생검 : 멍울을 전부 떼내어 현미경 하에 조직검사,
- 2) 절개생검 : 멍울의 일부를 떼내어 시행하는 조직검사,
- 3) 세침흡입세포검사 : 주사침을 이용하여 멍울로부터 세포를 분리해 내어 시행하는 세포도말검사,
- 4) 맘모톰검사 및 절제술 : 초음파와 진공법을 이용하여 조직을 분리해 내고 경우에 따라 멍울 전체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 등의 조직진단 방법이 있다.

유방진료는 유방질환에 경험이 많은 외과의사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유방암을 놓치는 경우가 적을 것이며 불필요한 검사 및 수술이 줄어들게 된다.



유방암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들

1 섬유낭성질환은 유방암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니다. 섬유낭성질환은 유방의 양성변화를 칭하는 유방의 변화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1 커피를 마시면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커피를 마시면 유방의 섬유낭성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방암의 발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유방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유방암 발생 유전자를 지닌 환자들에 있어 커피를 많이 마셨던 환자에서 유방암의 발생이 적었음이 보고되어 있다. 이는 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여성호르몬인 피코에스트로젠이라는 물질에 의한 항산화효과에 의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커피를 유방암의 발생을 막기 위해 무턱대고 마시는 것은 심장혈관계 질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1 가족력이 있는 여성만이 유방암이 걸릴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 유방암이 발생한 여성의 80%에서는 가족력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력이 없다고 해서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이 필요하다. 본원은 유전성유방암의 진단 및 예방을 위한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면 조기 유방암을 100퍼센트 찾을 수 있다

아니다. 유방촬영술은 유방암을 조기에 찾는데 가장 중요한 진단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100%의 정확도를 지닌 것은 아니다. 멍울이 있는 여성은 물론이지만 유방촬영술에서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어도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한 검진을 지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음파검사가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 나이든 여성은 유방암이 발생할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서양 여성에 있어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은 증가한다. 따라서 모든 연령의 여성은 유방암의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암의 발생위험이 40대 중후반에 가장 증가하며 이후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1 40세 이전의 여성은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방암은 모든 연령의 여성에서 발생한다. 40세 이전의 여성에서 유방암의 발생이 다소 적더라도 생리주기를 넘어서서 유방에 멍울이 느껴지면 전문의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근 20대 초반의 여성에서도 발견되어 수술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유전적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유방암의 진단은 응급상황이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멍울로만 느껴져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8년 내지 10년 전에 발생하여 천천히 자라는 것이다. 서서히 경과가 진행이 되는 것이므로 침착하게 치료에 대해 고려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치료에 임하도록 하여도 된다.

1 유방절제술을 시행하면 유방암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유방절제술로 유방이 제거되었지만 유방암이 재발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8%에서 10%의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후 상처부위 등에서 재발하거나 전이를 일으킨다. 유방의 일부만 절제하는 수술법(유방부분절제술)은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면 유방을 전체 절제해 내는 수술법(유방절제술)과 동일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1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것은 곧 사망을 선고받는 것이다

조기 유방암은 표준적인 치료에 의해 치료가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전체 유방암의 완치율(5년 생존률)을 85%로 보고하고 있다. 완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3년 내지 5년 생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 여성만이 유방암이 걸린다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발생하나 전체 유방암의 1% 미만이다.

1 유산은 유방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다

유방암과 유산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만삭에 가깝지 않은 유산의 경우 유방암의 발생이 많을 수 있는 보고들이 있다. 이는 임신으로 인한 유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재건수술

아랫배는 날씬해지고 유방도 재건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유방은 신체의 특성상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에서 유방암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상징을 상실한 상실감은 단순한 기관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유방암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방재건수술의 목표는 남아 있는 반대측의 유방과 대칭인 새로운 유방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상적인 여성의 외형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 본인들도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방암 수술이 계획된 대부분의 환자는 유방재건 수술 후의 유방모양이나 유방 절제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지에 등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유방재건수술을 받게 될 환자들은 수술 시 유방 삽입물이 사용되는지 혹은 자가조직을 이용하는지, 또는 반흔의 위치나 모양 그리고 회복기간 등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외과의사와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의 정서적, 육체적 및 종양학적 치료에 밀접한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유방재건수술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여성의 상징을 상실한 여자에게 정서적 충격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방재건은 그 시기에 따라 외과의사가 유방절제술을 시행 후 연속적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유방을 재건하는 '즉시

유방재건술' 과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고 나서, 필요에 따라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마친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 재발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 재건하는 '지연유방재건술'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 절제 후 유방재건 수술시기는 재건술의 발달과 환자의 정신적 영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지연재건수술' 에서 '즉시재건수술' 로 변하고 있습니다. '즉시유방재건술' 에 대해 환자에게 의학적인 금기가 없다면 지연재건수술에 비하여 확실한 이익이 있습니다. 즉, '즉시유방재건술' 의 경우, 유방을 절제한 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피관이 유연하여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반대측 유방과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하고, 유방밑주름의 재건이 용이하여 훨씬 더 향상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단 한번의 마취와 입원으로 재건이 가능하므로 비용이 훨씬 절감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병증 발생율도 지연재건술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연수 교수 | 성형외과

- 전문분야 :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 진료시간 : 월(오전), 수(중일), 금(오전)
- 문의 : 성형외과 ☎032-890-3870

유방 재건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유방 재건수술은 크게 자신의 조직을 사용하는 방법과 유방 삽입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암 절제 방법이 결정되며, 이 절제 방법과 보존된 조직, 환자의 상태,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선호하는 방법들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대개 자기 자신의 조직으로 복원하는 것이 수술시간이 길고 방법이 어렵지만, 유방 삽입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촉감이 좋고 다양한 모양에 맞추기가 유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랫배 조직, 즉 배곧은근피판을 이용하는 경우_ 튀어나온 아랫배의 조직을 이용하여 유방을 복원해 줍니다. 한쪽 배근육(배곧은근)과 아랫배의 피부와 지방을 가슴으로 이동하여 유방을 만들어 줍니다. 아랫배도 날씬해지고 유방도 재건하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 삽입물이나 등의 조직에 비하여 촉감이 더 자연스럽고 상당히 큰 유방도 재건이 가능합니다. 아랫배에 수술을 받아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후 임신과 분만도 가능합니다. 아랫배 조직은 현재 미국에서 유방 재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가 조직입니다. 유방의 피부를 보존하면서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고 동시에 이 방법으로 유방을 복원하면 결과가 매우 좋아 수영복을 입어도 잘 몰라볼 정도입니다.

배곧은근피판으로 유방재건수술을 시행한 경우, 찢קות과 젖꼭관은 3-6개월 지나서 만들게 되는데, 환자분께서 양쪽 유방의 대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대쪽 유방의 확대나 축소술, 또는 유방하수 교정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배곧은근피판을 이용하는 방법은 수술 후 복부 근력의

약화나 탈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여 걱정하시는 분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유방복원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후에도 수영, 테니스, 골프, 등산 등의 운동을 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고 탈장이 발생한 경우도 없었으며, 수술 후 정상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수술을 받은 후에 제왕절개가 아닌 정상분만으로 쌍둥이를 출산을 하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유방 삽입물을 사용하는 경우_ 남아 있는 피부가 충분한 경우 가슴 근육 밑에 실리콘 주머니로 된 유방 삽입물만 사용함으로써 유방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유방 모양이 표준에 가깝고, 너무 마른 체형이라 충분한 자가 조직이 없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공 부위 수술이 필요 없고 수술이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유방 삽입물은 나중에 삽입물 주위의 조직이 딱딱해지거나 삽입물이 터질 위험이 뒤따릅니다.

조직 확장기를 사용하는 경우_ 피부가 부족한 경우 조직 확장기를 넣어 오랜 시간을 두고 생리식염수를 정기적으로 주사기로 주입하여 피부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몇 달 후 피부가 충분히 늘어나면 2차 수술을 통하여 조직 확장기를 빼내고 유방 삽입물로 교체합니다.

수술시간은?

유방 삽입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시간, 배곧은근피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8-10시간이 걸리며 전신마취로 진행됩니다. 입원기간도 수술에 따라 2-10일이 소요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는 약 3-6주가 걸립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유방을 가지는 기쁨으로 능히 이겨내는 것을 볼 때 더 많은 분들이 상실의 슬픔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암 환자의 운동 요법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시작

글 · 김치중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극복자들과의 시간

얼마 전 본원에서 암 홍보대사 분들을 초청하여 '자가 운동 요법 배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동 교육을 하였다. 세부적으로 집에서 가능한 밴드를 이용한 근육운동과 매트에서 요통체조를 직접 함께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필자는 당뇨비만센터 소속으로 당뇨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만 개인별 맞춤 운동교육 및 처방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암을 진단 받고 치료 중, 치료 후 그리고 완치를 판정 받은 분들을 만나 뵙고 운동을 해본 경험은 처음이었다. 교육대상자인 암 홍보대사 분들은 대부분 완치를 판정 받은 분이었으며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계셨고 처음 뵙고 느낀 점은 일반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주 건강한 모습 오히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좋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분들 대다수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신체 활동 및 운동을 접하고 있었으며 이는년부터 좋은 습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주는 자극제로 다가왔다. 5년 이상 암을 이겨내신 분들에게 최근에는 암 생존자라 부르지 않고 암 극복자 혹은 정복자라는 칭호로 바꿨는지 새삼 깨달은 시간이었다.

암 환자에게 운동이 주는 효과

암 치료 중에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는 신체 능력을 유지시키고 균형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낙상이나 골절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암 치료로 인한 피로감을 완화시키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며, 심장질환위험을 감소시키기도 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힘든 치료 과정을 겪으며 불안 우울증을 앓기 쉬우나 운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고, 자부심과 자기 만족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 부정적인 정서를 떨쳐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몫을 한다는 설명이다.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해야 하는 중증도 암환자에게도 운동은 뻗뻗한 관절, 근력 약화, 호흡곤란, 변비, 육상, 식욕감소, 스트레스 감소, 피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암 환자 운동 참여 실상

신체 활동이 암과 연관된 피로를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일반적으로 암환자들은 주치의에게 운동을 할 것을 권고 받고 있지만 실제로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스포츠의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암환자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만큼의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일반인의 일주일 평균 운동량인 150분 정도가 적절한 신체활동이다. 미국의학협회에서 운동과 유방암 진단 후 생존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체중이나 병기에 관계없이도 운동으로 인해 사망률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최근 나온 모든 연구에서 운동은 어떤 형태로든지 암환자에게서 도움을 준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왜 운동을 안 하는가를 고민해본 결과 아마도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결국 받아들이기엔 운동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기 전부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즉내 체력 수준을 알고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운동종류, 시간, 빈도, 강도, 흥미 등)을 찾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암환자들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나?

우선 암환자들은 각자의 체력 상태를 먼저 점검해 그에 맞는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신체활동을 얼마나 견딜 수 있고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생각은 운동을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직접 해봐야 내 운동 능력을 알 수 있으며 문제점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 처방할 수 있

는 병원이거나 보건소 등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보통의 암환자의 경우 낮은 체력으로 인해 운동 종류를 선택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자전거, 수영 등부터 시작 하는 걸 권장한다. 그러면서 각자의 목표를 설정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로 지금은 걷기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체력을 키워서 가을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낮은 산이라도 꼭 가족과 함께 등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면 좋을 것이다. 점차 체력이 좋아진다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운동 종류의 폭을 그만큼 넓어질 것이고 자신감도 상승할 것이다. 운동의 양은 시작 후 천천히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분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10분씩 나누어서 실시하고 지속 시간은 서서히 늘리면 식으로 하루에 30-60분을 목표로 한다. 운동 횟수는 주 5회 거의 매일 하는 것이 좋으며 주 150분 정도가 적당하다. 무엇보다 강도가 중요한데 내가 느끼는 주관적 강도로 '약간 힘들다'의 느낌이다. '약간 힘들다' 라는 느낌은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이다. 처음에 보통 걸음이 '약간 힘들다' 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시작하고 점차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걸음 속도와 거리를 늘리도록 하자. 걷기, 고정식 자전거 거조차도 하기 힘들다면 매트에서 다리 근력 운동(다리 들어올리기 등)과 스트레칭 방법을 알고 실시하는 방법이라도 하자. 반대로 걷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 또한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한다면 근육량 손실도 막고 관절 주변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 암 환자에게서 있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고려할 부분은 안전이므로 혈액수치가 낮거나, 빈혈, 구토, 설사 등 이상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 하에 운동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암환자를 위한 운동은 전체 암환자를 통틀어 적용하고 권고되는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대장암과 유방암 등 일부 암에서만 운동요법이 따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암 종별에 맞는 좀 더 자세한 운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미한 측면이 있고 맞춤 운동 처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필자도 인식 하지만 그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암 종류별로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직접적인 이론적 효과 측면이 다를 뿐 운동 능력에 맞춰 실시할 수 있는 어떠한 운동이든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 특화된 운동을 생각하기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을 택해 규칙적으로 한다면 다양한 운동의 효과를 경험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감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문의: 비만센터 | 032-890-3360 / 건강증진센터 | 032-890-3331

2011 Medical Volunteer Mongolia.....



의료봉사-몽골

미소를 잃지 않는 훌륭한 무대의 감동을

글 · 추상순 간호사 | 인하대병원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불현듯 긴급 구호 팀장 한비야가 생각났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전쟁터든 재난 지역이든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앞을 스치며
푸른 하늘과 넓은 초원 속에서 살아가는 몽골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어떤 일이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고등학교 시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라고. 그래서 난 누군가에게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전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다. 그 이후로 집 주변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고아원 등에서 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노력했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봉사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며 요양원, 복지원, 소록도 등에서 내 마음을 전하고 그들이 느끼는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 마음도 행복해지는 짜릿한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갔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점점 내 마음 속 틀에 갇혀 지내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에 소홀해지고 있었다. 이때 내 마음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병원에서 몽골 의료봉사 자원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난 후였다. 불현듯 긴급 구호 팀장 한비야가 생각났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전쟁터든 재난 지역이든 달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앞을 스치며 푸른 하늘과 넓은 초원 속에서 살아가는 몽골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몽골 의료봉사에 자원하게 되었다.

몽골 의료봉사를 알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 맘 속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게 해 주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5박6일의 짧은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몽골의료 봉사에는 인하대병원 봉사단 8명과 인천남동청년회의소 회원 11명이 함께 참여를 하였고 바양골구 지역 보건소와 수크바타르 지역 만담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다. 숙소에서 하룻 밤을 보낸 후 우리는 마음속 해피바이러스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넓은 중고 자동차와 험한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거리 행진 속에서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파란하늘과 구름 아래로 초원이 보이고 초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되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 우리나라 60~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 넓은 판자집들 속의 한 진료소였다. 진료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 간호사, 약사로 구성된 우리 인하대병원 봉사단은 진료실을 내과, 외과, 소아과 3개로 나누어 구성하고 약제실을 따로 운영하였다. 간호사로 참여한 나는 진료 전 활력징후와 혈당을 측정하고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남동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진료소 개소식과 안내로 우리는 진료를 개시하였다. 진료실에는 환자들이 뒤엉켜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하대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

진료실은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너무나도 정겨운 풍경이었다. 통역과 의료진들이 팀을 이루어 진료를 진행하였다. 환자가 들어오면 통역이 가르쳐준 인사로 “쎬베노!” 하고 탄갑게 맞아주고 환자가 환하게 웃으며 “쎬베노!” 하고 인사를 한다. 환자는 통역에게 열심히 말을 하고 우리도 통역에게 열심히 말을 한다. 의사가 다시 환자에게 의사가 다시 통역에게 그리고 다시 나에게. 진료시간이 두 배 이상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너무나 호흡이 잘 맞아 별 어려움이 없이 진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 몽골 사람들은 먹을 물이 적어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보드카 같은 독한 술을 많이 마셔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심혈관계 질환이 많았다. 또한 유목생활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 결핵, 피부병들이 많았다. 대부분



의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180-200 mmHg 이상이었고 혈당수치도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심혈관계 질환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리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위해 나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인 흡연,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을 조절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요법에 대해 알려주고 족석에서 시범을 보여주며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였다. 또한 짠 음식과 육류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식이요법에 대한 교육도 시행하였다.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진심을 보여주었다. 이홍식 교수님, 안종혁, 권수연 선생님의 열정적인 진료와 박민하, 김정경, 윤희장, 김필립 선생님의 진지하고 따뜻한 마음, 남동청년회소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몽골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병원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많은 의료진들, 무대가 아주 협소하고 기량을 펼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훌륭한 무대를 보여준다면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멋진 무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해진 무대에서만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무대를 보여주는 소홀하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훈훈한 마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간다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 를 보았습니다

글 · 김영숙 간호사 | 외래간호팀

새로운 도전

무척 활발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다니는 것만은 싫어했던 나였지만, 아프리카는 아무 때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우간다 봉사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본원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 지역 중 가장 먼 곳이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우간다이다. 아시아가 아닌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간다는 것도 특이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더욱 남달랐다. 다른 의료봉사 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성적 증명서, 추천서, 이력서 등을 영문으로 준비하면서 동료들에게 우간다에 취업하는 것 같다고 우스개 소리를 했었다. 수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도 잠시, 드디어 출발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여러 종류의 예방접종을 하고 진료재료를 준비하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내전이 끝난 지 3년 정도 밖

아프리카인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눈길을 어디에 뒀야 할지 몰랐지만 우리에게 손을 흔들면서 밝은 웃음으로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면,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에 안 된 곳을 방문한다는 것이 조금은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우간다 의료봉사팀원을 통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나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닌 듯 했다.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를 만나다

8월 28일 23시 55분 비행기를 타고 출발한 우리 봉사단은 두바이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숙소가 있는 수도 캄팔라에 24시간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중에는 국내 최강 길치라고 자부하던 나 때문에 생긴 일도 포함된다. 두바이 공항에서 4시간 머무는 동안 화장실 간다고 혼자 나간 뒤 화장실과 일행이 있는 곳을 못 찾고 돌아다니다가 봉사단에 의해 발견되어 국제 미아(?) 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그 후 십분 이상 보이지 않으면 봉사단원들이 찾으러 다녀야 하는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빅토리아 호수와 드넓은 초원이 있어 풍요로운 자연경관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윈스턴 처칠로부터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영화 ‘타잔’의 촬영지였다고 한다.

숙소 3층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초원에서 소와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어서 마치 뉴질랜드에 있는 듯 한 착각이 들었다. 우간다에 도착해서 가장 놀란 것은 생각보다 많은 승용차와 대부분의 차가 ‘도요타’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우간다 경제 사정이 우리나라 60년대와 비슷한 것 이라는 생각에 도로에 차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차량도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했다. 신호등 없는 곳이 많아 눈치껏 가야하고 요리조리 잘 비키면서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우간다에서 운전하려면 웬만한 실력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간다는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다. 차파티(얇은 밀가루 반죽), 옐렛, 감자튀김, 콩 스투 등이 대표 음식이며 매일 먹는 음식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입에 맞지 않는다는 것 보다는 질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가장 특이했던 음식이 바나나를 찌서 만든 마토키이다. 흔하게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간다에 도착한지 4일 만에 맛볼 수 있었다. 안 익은 초록색 바나나로 만든 음식인데 달지 않은 고구마와 비슷한 맛이다.

따뜻한 손길을 그들에게 건네며

키유니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먼저 와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들은 이번 진료를 위해 5-30km를 걸어서 왔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일생에 있어 한 번이 될 수도 있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이다. 아프리카인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눈길을 어디에 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우리에게 손을 흔들면서 밝은 웃음으로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우리 봉사단은 의료캠프와 함께 5개년 계획으로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약물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달 수입이 5-6달러에 불과한데 말라리아 치료비용이 3-4달러이고 자녀 3-4명이 감염된 경우 치료비 감당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캠프 첫날 기생충학과 김동수 교수님을 대신해 혈액관리를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앞치마와 장갑만 낀 채 채혈을 하고 혈액을 다루는 것을 보며 걱정스러웠지만, 그들의



지존심을 건드릴 수 없어 우리가 준비해간 보호 장비를 선뜻 내밀 수는 없었다. 감염의 위험이 있어 혈액관리만 하기로 했지만 좁은 방에서 아파서 우는 소아 환자들을 보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팔을 잡아주고, 채혈이 잘 안되는 경우 한두 명씩 대신 해주면서 무언가를 했다는 뿌듯함 보다는 바늘이 찔리면 안 된다는 극도의 조심스러움에 등에서는 연신 땀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예뻐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말라리아, 에이즈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의료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현지 의사들의 처방전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처방전 하나하나마다 현지 간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전기시설이 없어 해가지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해결 못한 처방전은 다음날로 미뤄야했고, 약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얇은 옷만 입은 채 긴긴 밤을 캠프장 주변에서 보내야 했다. 현지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봉사단과 자원봉사자 모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힘든 일, 굶은 일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3일간 13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고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땀 흘렸지만, 멀리서 온 환자를 모두 봐주지 못하고 일부 둘러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감사하는 마음

7박 8일을 함께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간다의 현실을 걱정하는 사이 봉사단원들과 정이 많이 든 것 같다. 우간다에서 돌아온 후 시차 적응하고 업무에 복귀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해단식을 앞둔 지금 다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손병관 의학전문대학원장님 이하 봉사단원 모두와 어린이재단 직원들, 자원봉사자 학생들, 그 외 우간다 의료봉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아이들의 밝은 모습처럼 우간다의 미래가 밝게 빛나기를 기원해본다.





자원봉사자 서명순 씨의 희망 이야기 나누고 베푸는 길로 한 걸음 더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나은 삶이 아니신가요? 저 같은 사람을 보며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7일(토) 인천대공원 아외음악당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대축제' 가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인천뇌성마비협회와 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주최한 이 축제의 기획에서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 이가 서명순(61세) 씨다. 특히, 개인적 친분이 있던 명창 이은관 씨와 김백국 씨(평창올림픽 홍보대사), 뽀빠이 이상용 씨 등의 유명인 섭외를 흔쾌히 받아낸 덕분에 모든 출연진들이 무료로 공연을 펼친 뜻 깊은 행사였다. 서명순 씨는 현재, 인천시민자원봉사회(회장:민창기)와 인천뇌성마비협회의 봉사자로, 해처럼달처럼봉사회(고문:박찬중, 의료지원사업)의 부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다. 또, 희망 메신저로서 대중강연을 다닌다. 봉사자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그녀의 삶은 늘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다섯 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다. 그녀는 무남독녀였다.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집을 나가셨다. 당시 명창으로 이름을 날리던 어머니(예명 : 이금주)는 암 선고를 받은 후 서둘러 20세의 그녀를 시집보냈고 사위에게 딸을 부탁하며, 명창으로 벌어들인 전 재산을 맡기셨다.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편은 자녀를 셋이나 둔 서명순 씨에게 이유 없는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다. 불행은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쳤다. 겨울철 공공 얼어붙은 수도호스로 머리를 내리쳐 욕심이 넘은 그녀의 머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다. 급기야, 남편은 그녀에게 이혼도장을 강제로 찍게 한 뒤,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집밖으로 쫓겨났다.

아버지의 이반도주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친외가쪽 친지들과 연락이 끊기면

▼ 인천뇌성마비협회 사무실에서
(좌측에서 서연희 회장, 손광훈 사무국장,
서명순씨,곽정원씨, 하명현 간사)





▲ 9월 19일 장애인 행복나눔 대축제 행사장에서

서, 혈혈단신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어,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처지였다. 부자집 딸로, 세상물정을 전혀 몰랐던 그녀에게 세상은 공포요, 두려움이었다. 1980년, 삼청교육대 파동과 맞물려, 서명순 씨가 두고 온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은 친분이 있는 경찰을 동원해 협박을 가해왔다. 그 뒤론, 자식들을 찾아볼 엄두를 못 냈다. 두 번째의 결혼은 시작부터 불행이었지만, 그래도 그녀에게 2남1녀의 소중한 자식들을 선물로 남겼다. 아이들의 아빠는 지금도 생사를 모른다. 특히, 막내아들(26세)은 축구선수로 유소년 국가대표에서 청소년대표까지 이름을 날리던 강철 선수. 돈이 없어 변변한 축구화 하나 마련해주지 못해 속을 끓이던 서명순 씨에게 불행은 계속되었다. 8년 전, 서명순 씨는 자궁암과 위암 선고를 받았다. 수술비가 없어, 자녀들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1,800만 원이 빚의 악순환을 만들어, 지금 세 명의 자녀가 모두 신용불량 혹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며 눈물지었다. 어린 자녀들과 하염없이 배를 곯을 때는 너무 힘들어,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우연히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분과의 인연으로 지금의 인천뇌성마비협회, 특히 서연희 회장과 그의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월세가 밀려 집에 못 가고 찜질방을 전전할 때, 쌀이 없어 굶는 일이 다반사일 때, 서연희 회장이 말없이 쌀 한 포대를 건네주었는데 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서명순 씨. "수천만 원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요. 얼마나 사무치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서명순 씨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뼈가 부서지도록 장애인단체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휠체어를 끌며 봉사에 참여해보니 너무 좋더라고. 여태껏 모르다가 누군기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거죠." 그 뒤로, 살아온 이야기를 아는 분들의 요청으로 간간히

강의도 나가게 되었다. 서명순 씨는, 다른 장애인단체들에 비해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고, 후원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뇌성마비 장애인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행히, 이번 축제의 기부금으로, 지금 거주하는 사무실 옆쪽에 작은 공간을 빌려 회원들을 위한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토록 힘든 삶을 어떻게 버텨왔을까? 위안을 얻고 싶을 때면 부평의 승화장을 찾는다. 요새는 화장터가 리모델링이 잘 되어, 데이트코스라도 손색이 없다. 그곳에서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라는 두 구절이 가슴에 와서 꽃힌 뒤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서명순 씨.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죽는 날까지 봉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다. 주위사람들에게 마음을 선하게 품고, 무엇이든 남에게 베풀며 살자고 역설한다. 가진 게 없으면, 몸을 수고롭게 해서 봉사하면 된다. 바람이 있다면, 인생의 막장으로 몰린 여자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게 없어 자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봉사하는 엄마의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좋은 기운들이 자식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의 은혜를 입지 않고 단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는 없다. 서명순 씨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봉사를 통해 위안을 얻노라고 한다. 그것이 그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환영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원봉사의 길에 한 걸음 내딛어보면 어떨는지요?

- * 글 · 권영선 | (사)희망배달본부 부부장
- *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032-830-1004
- * 서명순 2998806@hanmail.net



사진 왼쪽이 필자



{ 서로 큰 힘이 되어주는 쌍둥이 간호사 자매 }

글 · 김정혜 간호사 | 신생아 집중 치료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정혜입니다.

2010년 3월 부푼 꿈을 안고 인하대병원에 입사하였습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신규 발령을 받은 지 2년째로 아직도 많이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하는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조금 빨리, 혹은 많이 빨리 나온 이른둥이 아기들과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천사같은 아기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비뽀고 긴 박한 상황들 속에서도 늘 신속, 정확하게 해내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선배 간호사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나의 일터에서 좀 더 환자를 위한 간호를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3교대가 너무 힘들고, 실수도 하고, 혼나기도 하지만 이런 저의 곁에서 가장 큰 힘을 주는 사람은 바로 저의 쌍둥이 언니인 서17 병동에서 4년째 근무 중인 김지혜 간호사입니다. 저희는 같은 날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로 성격도 외모도 쌍둥이답지 않게 닮지 않았지만 인하대병원이라는 하나의 병원에서 간호사라는 하나의 직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근무가 힘들고 제가 병원에 막 입사하여 모든 게 벅차서 포기를 생각했을 때도 가장 큰 격려와 위로를 준 것은 바로 가장 저를 잘 이해하는 언니였습니다. 혹시나 근무가 같은 날 일찍 마치는 사람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퇴근하며 수다를 떨면 그날 하루 스트레스가 다 해소될 만큼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작고 마른 몸으로 병동을 중형무진 하며 씩씩하고 씩씩한 간호사로 통하는 저희 언니를 저는 늘 동경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올라와 힘든 신규 시절을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견뎌낸 언니와 다르게 저는 늘 힘들다고 투정부리고 기대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의젓하고 기쁠 수 있는 간호사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인하대병원이라는 좋은 병원에서 간호사라는 선택받은 직업을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좀 더 간호사다운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언니 지혜야. 앞으로 서로 더 의지하며 씩씩한 간호사 되자.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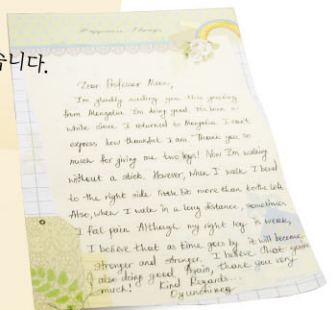


I hold you in the highest respect

몽골에서 보내 온 감사의 편지

문교수님께
 이 편지를 몽골에서 보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두 다리를
 치료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목발 없이 잘 걷고
 있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 편으로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또한 긴 거리를 걸어갈 때, 때로는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록 저의
 오른 다리가 약하긴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수님도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윤치맥 올림

I hold you
in the highest
respect



오윤치맥 씨와 인하대병원은 인연이 깊다

두 딸이 한동대 유학생으로 한국에 머물러 있던 중, 큰 딸이 인천대교 사고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간병 차 입국하였다. 인하대학교 앞에 방을 얻어 6개월 동안 간병을 하여 딸은 건강을 찾았지만, 오윤치맥씨는 앓고 있던 '염관관절증'이 심해졌다. 통증을 견디다 못해 결국 2011년 4월 본원 정형외과 문경호 교수에게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문경호 교수는 이들 외국인 모녀의 사정을 듣고 일부나마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는 등 진료 이외의 부분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제는 건강하게 몽골로 돌아간 오윤치맥씨가 문경호 교수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2011년 하계 학생자원봉사활동 참가 수기 몸은 힘들지만, 마음과 정신은 뿌듯!!

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선반 이리나

첫날 교육 후 배정받은 활동부서가 자원봉사자실이라고 해서 사실 좀 실망했었다. 하지만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께 책을 대여해 주고 반납하는 활동이라는 걸 알고선 무척 기뻐고 특별한 일을 하게 되어 설레기도 했다.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환자분들이 입원해계신 7~17층까지 순회하며 도서를 대여하는 봉사를 했는데 며칠 사이에 열 굴도 익숙해지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생겼다. 뿌듯할까? 우린 8층 소아병동에 자주 갔는데 민서와 도율아, 은빛아, 현주, 재환이등, 우리를 보면 항상 웃으며 따르는 아이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치료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마음이 아파지기도 했다.

봉사를 하는 동안 줄곧 만화책만 빌려 가시다가 퇴원하신 만화책 3인방 아저씨들과 노트북설치를 제안하시며 음료수를 매번 챙겨주시던 아저씨, 책 추천을 해달라시던 아주머니까지 모두 잊지 못할 인연인 것 같다.

마지막 날엔 전날 병원에서 배운 풍선아트를 이용해서 소아병동 아이들에게 감이지부터 우산, 칼, 모자, 꽃 등을 만들어 주었다. 손이 아프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과 정신만은 뿌듯하고 개운했다. 마지막이라는 서운함에 같이 지낸 아이들 모두 눈과 마음에 담았다. 모두 잊지 못할 것이다.

경기예술고등학교 1학년 김가영

이번 하계방학중 인하대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기대했던 것보다 탄탄하고 계획 있는 봉사활동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뻐고 새로운 경험과 환경을 체험하게 되어 좋았다. 의료관련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애들이나 내 친구에게 이곳에서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봉사하면서 보니 환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도와주시는 간호사분들이 참 대단하고 단지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는 일

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특히 더 대단하게 느껴졌다.

나는 투석환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신장센터에서 봉사했는데 내가 한 활동이 전문적이지도 않고 큰 도움도 되지 않았겠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 다른 이를 돕는다는 생각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뿌듯했다. 안 해보던 일을 하고 낯선 환경에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보람된 병원봉사였다.





국내최초! 외국인 일반식 메뉴 시행!!

서양식(일반식)

인하대병원에는 현재 외국인식을 각각 일반식과 고급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식은 일주일 단위 메뉴를 기본으로 환자분께 제공하며, 고급식은 개별 메뉴선택 용지에 환자분이 직접 선택하신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에서 최초로 외국인 일반식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식사만족도를 높이면서 식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인하대병원 외국인 환자식사

글 · 박유정 영양사 | 영양팀

해외에 나가면 그리워지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맛! 해외여행을 장기간 하거나 외국에 잠시 연수를 다녀오셨던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치료를 위해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해 치료 받으시는 동안 조금이나마 본국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2011년 3월 7일부터 기존의 서양식을 일반식과 고급식으로 세분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식과 몽골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분께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관습과 문화를 고려한 이슬람식, 다양한 약선 요리 및 보양식의 의미를 가미한 중국식, 소박하고 정갈한 일본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골식

몽골의 유목민들은 말, 소, 야크 등 기르던 동물로 생계를 꾸려왔기 때문에 주로 낙농 제품과 고기류를 이용한 요리가 많고,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하여 지방 섭취가 필수적이어서 기름을 이용한 볶음이나 튀기는 조리법이 많습니다. 이러한 몽골식의 특징을 고려하고 몽골식의 전통음식을 고려태술(사골칼국수), 보찌고기(만두), 친승 운드크(삶은 달걀) 등을 식단에 반영하였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육류, 면류, 탕류 등으로 메인 메뉴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식

소박하고 영양가가 많은 러시아식은 신맛을 선호하고 동양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한랭지인 러시아는 지방질이 많은 육류, 생선 등 단백질 식품을 사용한 요리가 많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블리니(팬케이크), 키예프식커틀렛(닭고기 튀김), 벨라(쇠고기와 채소를 넣은 볶음밥) 등의 러시아 전통음식을 식단에 반영하고, 선호도가 높은 어육류 면류 등으로 메인 메뉴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Q&A



결핵에 보약? 평소식사면 충분!

Q : 결핵에 걸리면 잘 먹어야 하는데 보약 같은 한약을 먹는게 도움이 되나요?

A : 결핵에 걸리면 환자는 대개 체중 감소를 보이며 전신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결핵에 걸리면 몸 보신이 중요하다는 속설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은 한약제로 지어진 보약을 자주 복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핵 치료 약제에는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간독성(약물 유발성 간염, 황달)이 3.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백혈구 감소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의 치료 중에는 이런 부작용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결핵의 호전 유무를 확인하는 흉부 촬영과 가래 검사 외에도 혈액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며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독성과 백혈구 감소증 등은 한약제를 복용하였을 때에도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므로 결핵약을 복용 중에 한약을 같이 복용하였을 경우 이런 부작용의 발생이 빈발하므로 항결핵제 복용 중에는 한약, 보약, 개소주 등을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핵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그저 평소에 드시던 대로의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서 결핵약만 꾸준히 잘 복용하실 경우 거의 모든 환자에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Q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항암제를 왜 사용하나요?

A : 류마티스 질환의 약물요법으로는 비스테로이드항염제, 호르몬의 일종인 스테로이드제, 인체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를 억제하는 항류마티스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항류마티스 약물은 면역세포에 작용하여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자기면역에 의하여 발생하는 많은 류마티스 질환(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전신성 홍반성 증후군, 혈관염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항류마티스 약물은 면역조절제 혹은 면역억제제에 해당하며 다양한 약물을 포함합니다. 이 중 cyclophosphamide, chlorambucil, azathioprine과 methotrexate 등은 항암제로도 분류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여러 가지 자기면역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또한, cyclosporin과 mycophenolate 등은 곰팡이에서 만드는 항생제에서 개발된 약물이지만 현재 항균제로 사용하지 않고 면역조절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질환에서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분을 면역조절 목적의 항류마티스 약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태아부터 100세까지,
된다 된다 내 아이 안심이 된다~

무배당 LIG 희망플러스자녀(태아)보험

소중한 아이의 생애 첫 보험! 출생 전부터 필요한 보장,
LIG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당신은 키우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내 아이, 태아에서 100세까지

무배당 LIG 희망플러스자녀(태아)보험으로!

- ▶ 태아의 안전도, 노후의 건강도 든든하게 100세까지 보장 가능
- ▶ 자녀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른 일대일 맞춤설계 가능 강화
- ▶ 출산위험, 어린이 디, 후유장애, 질병, 암, 골절 등 자녀의 모든 위험을 대비한 다양한 보장 가능 (해당 특약 가입시)
- ▶ 만일의 경우 대비 부모 사망시 유자녀학자금 지급(해당 특약 가입시)
- ▶ 다자녀 가정할인 / 출산할인 제도로 최고 5% 보험료 할인가능

보험가입 부가서비스

- 1 베이비네임스 작명 서비스 **최고 89%할인**
- 2 인터파크 HM 홈케어 서비스 **최고 66%할인**
- 3 인터파크 쇼핑 이용시 **5천원 할인쿠폰 증정**
(식품/우아 카테고리, 2만원 이상 사용 시)

※ 상기 서비스는 제휴업체에서 제공됩니다

LIG 손해보험으로

일!에서 일!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연세 이명래 내과의원 | 이명래 원장

내시경 검진이 쉽고 편한 곳

연세이명래내과의원이 개원한 한 것은 지난 8월 8일의 일이다. 그러나 이명래 원장은 연세내과로 9년간 이 지역에서 진료를 하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다른 일을 보았으나, 늘 진료현장이 그리웠고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이 원장은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치고 설렌다.

연세이명래내과의원은 내과진료를 비롯한 1차 검진이 가능하고, 산부인과를 제외한 종합건강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과 각종 채용 검진이 가능하다. 특히 소화기 내과의 내시경이 주 전공이어서 이 원장은 "내시경 검진이 쉽고 편한 곳"임을 강조한다. 편한 내시경이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편하게, 부작용으로 올수 있는 호흡곤란이 오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란다.

아울러 짠 음식, 불에 태운 음식, 질산염(방부제 등)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위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설명한다. 이 원장은 환자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환자를 정신적, 경제적인 부분까지 헤아리는 토털케어의 마음으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진료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자신이 돌보던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함이 있었는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보니 편하고 내내 마음에 있던 빛을 갖는 느낌이라고 전한다.

재개원을 하자 다시 찾아주는 환자들, 인사차 들렀다면 손을 꼭 붙잡아 주는 지역 주민들 덕에 과거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고 신뢰가 남아있음에 가슴이 벅찼다. ●인천시 남구 용현5동 ☎032-881-7583



이화 웰 붐 소아청소년과의원 | 이경신 원장

함께 아이 키우는 '애 엄마' 같은 마음으로

2010년 시작과 함께 개원 한 이화 웰 붐 소아청소년과의원 이경신 원장을 만났다.

소아나 청소년은 작은 어린이 아니라 처방 운영도 확연히 다르고 나이별 특징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 이화 웰 붐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진료도 가능하며 호흡기치료실, 수액실, X-레이 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손 자주 씻기, 기침에 대한 예절을 특히 잘 지켜야한다. 아이들은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1명이 아프면 전체가 아플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충분히 교육되어야 한다고 이 원장은 강조한다. 아이의 병이 호전되어 아이와 부모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원장의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이 원장의 보람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친근한 병원, 문턱이 높지 않아서 의사와 환자가기 전에 육아상담을 의사로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의 기쁨으로 귀 기울이는 동지애를 갖고 싶은 바람을 전한다.

그래서 또 이 원장은 큰 욕심 없이 자신을 찾는 좋은 인연들과 지금의 자리를 지키며 건강하게 크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다. 병원의 덩치를 키우거나 하는 욕심은 없는 이 원장, 아이처럼 맑은 미소를 내내 쏟아내는 그녀의 훗날 계획은 의료봉사였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032-833-7119

인하대병원, 경인방송 공동기획 <라디오종합병원> 암특집방송



2011년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5주간 매주 토요일 08시부터 09시까지 경인방송 <라디오 종합병원> 암특집 방송에 인하대병원 의료진이 출연하였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암'에 대하여 알고자 경인방송 함께 공동기획으로 진행한 이번 암특집방송은 8월 13일 혈액암, 소아암을 시작으로 폐암, 갑상선암, 자궁난소암, 간암, 대장암, 위암의 순으로 총 5주에 걸쳐 총 9명의 각 분야별 암 전문의들이 출연하여 막연하게 알고 있던 '암'의 원인과 최신치료방법 및 예방법 등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암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4기 원우 및 선배 원우 발전기금전달



2011년 8월 5일 제 4기 건강문화최고 경영자과정 수료식과 함께 병원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4기 원우회 일동 1천만 원, 제 4기 배운식 대표 1천만 원, 제 2기 이인철 대표 1천만 원, 제 2기 이점만 대표 1천만 원, 제 1기 구제병 대표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였다. 인하대병원은 원우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Inha Univ. Hospital

인하대병원, 몽골 보건복지부와 지정병원 협약체결 ●

2011년 9월 17일, 인하대병원은 몽골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몽골 보건복지부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바탕으로 인하대병원은 몽골 보건복지부를 특별 고객으로 우대하고, 보건복지부 추천 환자에 대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몽골 보건복지부는 인하대병원을 몽골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한 지정병원으로 이용하게 된다. 또 이번 협약과 더불어 몽골 국립방송사인 MNB의 <메디컬드라마 - 간호사 슈렌>을 인하대병원에서 촬영하였다.



인하대병원, 의료관광시장 개척을 위한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에이전시 팸투어 실시 ●●

2011년 9월 15일, 인하대병원은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시장 개척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 15명으로 구성된 투어단은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비롯한 인하대병원 의료관광 상품의 우수성을 설명 받고, 우리 병원의 최신 의료기기와 시설을 둘러 보았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열악한 의료수준으로 인해 진료 차 해외로 나가는 현실인데, 우리 의료관광의 우수성이 제대로 홍보될 경우 상당한 유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병원, 암 홍보대사 교육 실시 ●

2011년 8월 31일, 인하대병원은 지난 6월 2일 실시한 <암 홍보대사 위촉 및 발족식>에 이어 홍보대사의 역할 강화와 실질적 혜택제공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의 암 극복을 위한 웰빙운동법에 대한 실습과 더불어, 추가로 위촉된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위촉장 전달식도 가졌다.



세계와 소통하는 인하대병원의 의료기술 - 중국청도인민병원 연수의사 수료식 ●●

2011년 9월 7일, 중국청도인민병원 황짜이쑤 등 5명의 본원 연수의사 수료식을 실시했다. 지난 3개월간 정형외과, 비뇨기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연수를 실시한 중국청도 의료진은 인하대병원의 선진의료와 시설에 감명을 받았으며, 성심성의껏 지도해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렸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인하대병원의 선진의료를 바탕으로 현지의술과 접목시켜, 많은 환자들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잊지 못할 추억과 노하우를 전해준 인하대병원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연평도 의료봉사 및 알레르기 질환 진료지원 발대식 개최 ●●●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2011년 9월 6일 '연평도 어린이를 위한 알레르기질환 진료지원 및 교육'을 위한 의료봉사 발대식을 실시했다.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용진군보건소의 후원과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주관으로 진행될 이번 의료봉사는 2011년 9월 16일~17일, 이틀간 연평도 어린이 200여명을 대상으로 피부검사, 폐기능검사, 기관지유발검사 등 알레르기질환 진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보호자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교육을 시행하였다. 본 의료봉사는 도서지역의 경우 바다와 인접하여 오존의 높은 농도 및 습한 기후로 인해 환경성 알레르기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지만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인하대병원 - 서산중앙병원, 협력병원 협약체결 ●●●●

지난 2011년 8월 25일, 인하대병원은 서산중앙병원(병원장 조돈희)과 함께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해권역 진료의뢰 중심 대학병원으로서 응급환자, 중환자 전원을 통한 진료의뢰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본 협약을 바탕으로 충청지역 환자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어 지역 의료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협력의료기관은 모두 75개 병원이 되었다.



인하대병원, 인천서부교육지원청과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지난 2011년 8월 23일, 인하대병원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원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하대병원 은 선별검사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내 조기 발견 등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장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에 관한 홍보자료 제공,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협약식 체결 ●

2011년 7월 26일, 인하대병원과 중부지방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의료비 할인혜택 등 차별화된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성실한 기업인과 종업원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라는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인하대병원은 모범납세자 본인 및 직계가족에게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2011 아프리카 우간다 의료봉사 및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 성료 ●●

인하대병원은 지난 2011년 8월 28일부터 7박 8일간 진행된 <2011년도 아프리카 우간다 해외 의료봉사 - 말라리아 퇴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지난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진행되었다. 이번 의료캠프 기간동안 1300여 명의 아프리카 우간다 키유니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내과 부문으로 나누어 진료를 진행했고, 특히 말라리아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해 단발성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전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하대병원, '폐암의 진단과 치료' 건강공개강좌 개최 ●●●

인하대병원 폐암센터는 지난 2011년 8월 18일 '폐암의 진단과 치료' 를 주제로 건강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폐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내원객을 비롯해 약 15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였고, 폐암센터 류정선 교수의 강의 후 원내 강사의 웃음치료와 더불어 참석자들에게 혈액 및 객담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여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인하대병원, 2011 몽골 의료봉사 성료 ●●●●

인하대병원은 몽골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지난 2011년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총 5박 6일간 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인하대병원과 인천남동청년회의소 그리고 대한항공이 함께 진행한 이번 몽골 의료봉사는, 인하사회봉사단장 이홍식 교수 외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요원 등 정예 의료인이 포함된 8명의 봉사단이 수크버타르 지역 만담병원, 비양골구 지역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또한 몽골국립병원에서는 의료진을 파견하여 인하대병원 의료봉사단과 협진하였다.



5박 6일 동안 인हा대병원 의료봉사단은 5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진료 및 시술을 시행하였고, 인 천남동청년회의소에서는 한국문화체험과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홍보 부스를 병행운영했다.

인हा대병원, MEDICAL ENGLISH 강좌, 제 1기 수료식 개최 ●

인हा대병원은 교육수련부 주관으로 간호사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MEDICAL ENGLISH 강좌 를 개설하여 2011년 8월 4일 제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전공의 1명, 간호사 6명 총 7명이 수료하였다. 국제진료센터 박홍재 소장을 강사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격주로 목요일 17시부터 2시간씩 총 10회 진행되었다. MEDICAL ENGLISH 강 좌는 의료관광 등으로 점차 늘어가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진 료과정 중 필요한 의료영어 회화를 사례연구를 통해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고, 현재 2 기를 모집 중이다.



인हा대병원, 인천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 -

제4기 건강 문화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식 성료 ●●

인हा대병원은 지난 2011년 8월 5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제 4기 건강 문화 최고경영 자 과정 수료식 및 선배와의 대화' 를 가졌다. 배운식 제 4기 원우회장을 대표로 총 56명의 CEO 과정 동문이 탄생하였다. 본 과정은 지난 3월 16일 입학식을 실시했고, 정윤찬 前 총리의 특강으 로 문을 열었으며, 약 5개월간 매주 수요일 저녁, CEO의 건강관리강좌와 문화 교양강좌, 레저강 좌, 경영특강 등 총 20여 개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 앞으로도 분기마다 실시하는 조찬회 를 바탕으로 원우들과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인हा대병원 마라톤 동호회, 강화섬쌀 65kg 지역사회에 기증 ●●●

2011년 9월 18일, 제11회 강화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인हा대병원 마라톤 동호회' 에서 참가기 념품으로 받은 강화섬쌀 65kg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달해왔다.

이에 본원 진로지원팀에서는 근거리에 위치한 인천시 남구 푸드마켓 2호점에 기증하였다. 푸드 마켓은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지체와 푸드마켓에서 선정한 이용자들이 매장에서 직접 필요한 물 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친화형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인हा대병원 고운소리 자선공연단 - '제26회 환자 및 보호자 위한 공연 성료' ●●●●

2011년 7월 9일, 인हा대병원 고운소리 자선공연단은 환자과 보호자를 위한 '제 26 회 정기공연' 을 성황리에 마쳤다.

시원한 여름노래와 연주, 멋진 째즈댄스, 난타, 민요 등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어린 환우들에게 이쁜 캐릭터 페이스 페인팅과 오솔풍선을 제공하였고, 퀴즈와 게임으로 신명나는 시 간이 되었다. 고운소리는 9월 가을 공연으로 정기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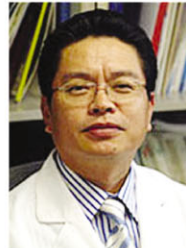
이비인후과 김영모 교수, 대한갑상선학회 부회장 취임 ●

2011년 8월 19일에서 20일까지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개최된 2011년 대한갑상선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본원 이비인후과 김영모 교수가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대한갑상선학회는 이비인후과, 외과, 내분비내과 등 갑상선 질환의 내·외과적 치료를 담당하는 임상과들이 함께 갑상선 질환의 최신지견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학회이다.



이비인후과 장태영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

이비인후과 장태영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1-2012년판 의학·건강(Medicine and Healthcare)분야에 등재되었다. 장 교수는 알레르기, 부비동질환, 코성형 및 인면성형 분야에서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등재가 결정되었다. 장태영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 비중격만곡증 및 부비동염, 오비기형 등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있고 대한비과학회 학술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꾸준히 국제학술지 및 국내학회지에 연구성과를 발표해 왔다.



대전 한민내과 원장가족, 병원발전기금 1천 만원 기부 ●●●

대전에서 한민 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한민희 원장 가족이 8월 4일 본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한민희 원장은 3년 전부터 본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강복순 씨의 사위이다. "장모님의 주치의로서 신장내과 김문재교수의 정성스러운 진료에 감사하며 최근 담석증으로 입원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보살펴주신 인하대병원의 전 의료진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고, 인하대병원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1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박금수 부원장과 김문재 교수는 환자 진료를 더욱 열심히 하고, 병원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파랑새 임원진 수련회 (을왕리 바닷가)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파랑새 2011년 회장, 총무 각 지역별 팀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을왕리에서 파랑새 운영에 대해 회의 및 굳은 의지를 다지는 좋은 시간을 갖었다.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인 파랑새가 파란 꿈을 싣고 훨훨 날 수 있도록 임원 여러분들이 희생과 봉사로 함께 할 것을 다지고 돌아오는 좋은 시간이었다.

제 1회 유전성 유방암, 난소암 시민건강강좌 개최

2011년 7월 14일 유방암 환우, 가족 및 관심있는 분 1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제 1회 여성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인하대병원이 인천유일에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며, 유방암의 5~10%를 차지하는 유전성유방암에 대해 생각해 보고, 유방암 조기 발견 방법에 대하여 교육 받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방암과 관련하여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난소암에 대한 도 얻는 시간이었다.

- ▶ **다음 행사** - ① 10월 5일 핑크리본 점등식 안전시청
② 10월 9일 핑크리본 마라톤 대회 여의도 공원
③ 10월 18일 핑크리본 공개강좌 인하대병원 3층 강당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1.07.21



출연: 최광성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인천방송 6시 뉴스
내용: 여름철 지위선과 피부관리

2011.07.26



출연: 이연지 교수/가정의학과
프로그램: 라디오 - 경기방송 FM 99.9
내용: 여름철 건강관리

2011.08.01



출연: 최광성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인천방송 6시 뉴스
내용: 여름철 탈모 예방법

2011.08.04



출연: 허윤석 교수/외과
프로그램: 라디오 - KBS 1TV FM 97.3
내용: 이 시대 명의와의 대화

2011.08.08



출연: 조재화 교수/호흡기내과
프로그램: 인천방송 6시 뉴스
내용: 결핵의 원인과 치료법

2011.08.11



출연: 이연지 교수/비만센터
프로그램: KBS 1TV - 9시 뉴스
내용: 다이어트 약품의 부작용

2011.08.12



출연: 김철수 교수, 김순기 교수/암센터, 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라디오 - 경인방송 FM 90.7
내용: 혈액암과 소아암의 예방과 치료

2011.08.13




출연: 임종한 교수/산업의학과
프로그램: SBS 8시뉴스
내용: 모기 기피제의 유해성

2011.08.20



출연: 류정선 교수, 김우철 교수/폐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프로그램: 라디오 - 경인방송 FM 90.7
내용: 폐암과 방사선 치료

2011.08.23



출연: 류정선 교수/폐암센터
프로그램: 라디오 - CBS FM 93.1
내용: 폐암의 예방과 치료

2011.08.26



출연: 홍성진 교수, 황성욱 교수/내분비내과, 산부인과
프로그램: 라디오 - 경인방송 FM 90.7
내용: 갑상선암과 지중난소암의 예방과 치료

2011.08.29



출연: 박승재 소장/국제진료센터
프로그램: YTN, MBN, KBS 1TV 뉴스
내용: 인천의료관광재단 출범과 해외환자유치 전략

2011.09.03



출연: 안승익 교수/외과
프로그램: 라디오 - 경인방송 FM 90.7
내용: 간암의 예방과 치료

2011.09.10



출연: 신용운 교수, 김경래 교수/소화기내과, 외과
프로그램: 라디오 - 경인방송 FM 90.7
내용: 대장암과 위암의 예방과 치료

2011.09.12, 09.13



출연: 인하시회봉사단
프로그램: T-broad 인천방송 / 청사특집 <몽골,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내용: 몽골 해외의봉사

2011.09.16



출연: 송희진 전임의/피부과
프로그램: SBS 생방송 투데이
내용: 시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인사동정

보직임명

소속	직위	성명	발령 사항
내분비내과	교수	남문석	임상약리학과 과장 겸직
알레르기내과	교수	김철우	임상약리학과 겸직

임용

안과	진료교수	오중협
대외협력홍보실	자문역	김정희
류마티스내과	일반의	주고운
치과	일반의	임종원
치과	인정의	정윤희

수습직원임용

특수간호팀	안지민, 박상아, 최수연, 박미소
병동간호팀	김혜영, 맹보라, 장수진, 박진영, 윤희정, 박은정
외래간호팀	정미옥
약제팀	김혜진

전근

소속	성명	발령 사항
특수간호팀	김옥금	임지료지원팀
병동간호팀	장수진, 양혜림, 이정민	특수간호팀
암진료지원팀	최서희	병동간호팀
간호부	강혜원	병동간호팀
병동간호팀	조영아	간호부
외과	이은주	간호부

파견

소속	성명	발령 사항
병동간호팀	양선희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

이달의 친절직원

8월 병동간호팀(동12병동)	김민혜 간호사
9월 외래간호팀(암센터)	윤은혜 간호사



Global INHA

이번에는 산부인과 진료 전 기초문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rse: Hello. What is your problem?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나요?

Patient: I have a pain in the lower abdomen.

아래쪽 배에 통증이 있어요.

Nurse: When did your menstruation start?

최근 월경이 언제였나요?

Patient: About a month ago.

한달 전입니다.

Nurse: What about your menstrual cycle?

월경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Patient: I have a thirty-day cycle.

30일 주기입니다.

Nurse: How long does your menstrual period last?

월경은 몇 일 동안 하세요?

Patient: About four days long.

약 4일정도 합니다.

Nurse: I need some information regarding number of pregnancy and number of children.

임신을 하신 횟수와 출산한 자녀 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Patient: I got pregnant three times and I have two children.

3번 임신했었고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 Global Inha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병원에서 쓰이는 영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병원 영어 회화가 있으시면, 원보의 엽서 또는 inhapr@inha.com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자격

- ①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②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③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2. 봉사활동시간(평일)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①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② 봉사당일 무료주차
- ③ 행사 참여 : 아유회, 송년회, 간담회
- ④ 자원봉사상상해보험가입
- ⑤ 의료비 감면(6개월 이상 봉사자)
- ⑥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시 우선 자격 부여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 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 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병원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4)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11년 9월 19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304명	1,059,393,298원	891,067,145원	

◎ 기부자 현황 | 2011년 7월 1일 ~ 2011년 9월 19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2011.7.13	강정자	10,000,000	신장내과 환우(완납)
2011.7.18	한국제인모터	10,000,000	제4기 건강문화CEO과정 배운식 원우회장(완납)
2011.7.18	제4기 건강문화 CEO과정 원우회	10,000,000	(완납)
2011.7.28	용현운수	10,000,000	제2기 건강문화CEO과정 이인철 원우(완납)
2011.8.23	인천남동 청년회의소	2,000,000	(완납)
2011.8.25	오중협	15,100,000	안과 교수(완납)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분만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10/13(목), 11/09(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환자를 위한 영양교육	• 대장암 환자의 식사 관리 • 암환자의 전반적인 영양 관리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암환자를 위한 미술치료	• 암환자의 우울감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미술요법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1시	18층 10호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무료공개 강좌

강좌 일시	강좌내용	진료과목	연자
2011. 09. 29 - 오후 3시	대장암의 이해와 예방	외과	최선근 교수

●장소 : 병원3층 대강당 ●문의 : 홍보팀 ☎ 032-890-2607



갤러리 전시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장소
2011. 09. 17 ~ 2011. 10. 01	우순옥 개인전	우순옥	2층 갤러리
2011. 10. 01 ~ 2011. 10. 15	이희성 개인전	이희성	2층 갤러리
2011. 10. 15 ~ 2011. 10. 29	인천채색화전	김정희 외	2층 갤러리
2011. 10. 29 ~ 2011. 11. 12	양현재단-어린이 그림전		2층 갤러리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금	심정혈관센터 (☎2440~1)	신장센터 (☎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권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금	월, 화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대혁	*	부정맥, 심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월, 수, 목	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신상희	*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화, 목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박상돈	*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화, 목										
일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수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08:30~09:30 서비스진료 내시경센터 (☎2540~1)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페암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수, 목	월, 목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수, 목	월, 목						
	이든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화			수, 목	수, 목(목)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수, 목	수, 목(목)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목	월, 목			월, 금	화, 금	진지확인					
	정석	*	담도암, 위암, 담낭, 인두, 췌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수	수, 금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정현정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금										
	정은선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민경선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박상현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최영철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유성수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일반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수(2,4) 금	() : 주별 진료 ▶페암센터	류마티즘센터 (☎2210~1)	박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월, 화, 수, 목, 금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목(1,3)			월, 목, 금	월, 수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화), 목(화)	(월), 화, 목			화, 수	화, 목, 금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목(4)			월, 목, 금	월, 수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금	(화), (금)			수	화, 목, 금						
폐암내과 센터 (☎3890)	이홍렬	*	폐종양	금		알레르기내과 (☎2216)	내과계일반 (☎2250)	김철우	*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수	화, 목			
	곽승민	*	폐종양	수				일반	전체적인 내과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류정선	*	폐종양	화, 목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조재화	*	폐종양	수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이현규	*	폐종양	월	목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금	목			
	남해성	*	폐종양	화	화, 금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흉부외과	김광호	*	폐종양	화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목), (목)	(월), (목)	□여성암센터	
		김정택	*	폐종양	월			목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월)	△비만센터	
		윤용한	*	폐종양	수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이명훈	*	불안장애	수			화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화), (수)	화, 목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목	□비만센터 △여성암센터(갑상선조직검사)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목	금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수, 목			최유미	*	소아외과	(수), 금	월, 수				
	홍성빈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수, 목	월 (화), 수		김장용	*	혈관내과	수	월, 수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분만후기: 2011.10.9까지)		월, 화, 금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이승연	*	당뇨, 내분비질환		월, 화, 금		김중현	*	유방, 내분비외과	수					
비만내분비내과 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흉부외과 (☎2280)	신경외과 (☎2370)	김광호	*	폐, 종격동, 기흉, 다한증	화(목), 목		▶페암센터		
	김소현	*	성비만, 대사증후군, 2형당뇨병 (분만후기: 2011.10.9까지)		월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목)	월, 목(목)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수(목)	수, 금(목)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김재호	*	일반흉부질환	목	화			
	성형외과	김연수	*	지방흡입술, 유행호흡기질환, 피부성형술	수				사이버나이프센터	박준은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화, 목	월, 목
	소아	김순기	*	소아비만	금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연구: 2011.6.~2011.11.30)		월, 화, 목	월, 목
	청소년과	이진우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목			오후: 1400~1600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목), 수(목)	월(목), 수(목)
	가정의학과	이연지	*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화, 목		박현선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수), 목	목(목)
	신장내과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혈액투석진료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월, 수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목	윤순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사이버나이프 척추추간주		수(금)	화, 수(목)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수	월, 목, 금	정준호	*	뇌혈관질환, 뇌종양, 뇌혈관기형, 뇌내외과, 뇌신경외과		금	화, 목				
						일반				화	목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창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신뢰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신뢰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정형외과 (☎2380)	문경호	*	인공관절수술, 근골,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수면무호흡,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김려섭	*	스포츠의학, 관절, 슬관절, 족관절, 족관절, 관절염	화, 목	목			김영모	*	두경부증영역,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수	▲아지러응급클리닉	
	김영구	*	스포츠의학, 관절, 족관절, 인공관절수술, 관절염	월, 수	수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월, 금	수(△)		
	강준순	*	슬관절인공관절수술, 근골, 관절염, 관절염, 골다공증	월, 수	월			최호석	*	중이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편도	화	수, 목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추간판증, 골다공증	월, 금	수			임재열	*	두경부증영역,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이동주	*	상지, 수부, 중앙, 관절염	화, 금	화			김영호	*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수면무호흡, 비과	수	월		
	김범수	*	족부, 족관절, 외상	수	수, 금			최정석	*	두경부, 소아비인후과, 편도, 수면무호흡, 난청, 귀질환	목, 금	월		
권대규	*	소아정형, 뇌성마비, 중앙, 외상	목	월, 목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신장기형, 미용	화, 목	화, (목)	◆입술, 입천장외과 클리닉	정신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일중증,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증, 병리클리닉	
	김연수	*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월, 수, 금	(월) 수(목)	◆비만센터(PS 외래에서 진료)		김철웅	*	난청, 청신경염, 청각장애, 발달, 조기성능	월, 목	수, 목	초기성능클리닉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정섭	*	소아정신과(안락학, 학습, 주의력, 언어, 행동장애)	월	화, 목, 금	학습장애클리닉, 소아정신과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갑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화, (목)	월 (화), 목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	신경과 (☎3860)	배재남	*	뇌종괴,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뇌기능 장애	화, 수, 목	월	월 (목), 수(목)	◆치매조기검진클리닉
	신정현	*	에이더피부, 알러지, 백반증, 두드러기, 피부염, 레이저	수, 금	월, 화, (금)	◆발도 및 외발사클리닉		이영훈	*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월, 화, 수, 금	수, 목	◆치매센터, ◆배양센터	
	송희진	*	백반증, 피부미용, 피부노화	화, (수)	화, (수), 금	◆피부미용외과클리닉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노인치매클리닉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성노화장애, 불임	월, 수	수		재활의학과 (☎2480)	하충진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중앙, 전립선질환	화, 금	화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목	뇌졸중클리닉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화, 금	화			최성혜	*	치매, 기억장애	월, 수, 금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성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월, 수	수			박희권	*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금	수면클리닉	
	이택	*	소아비뇨, 소아 및 성인비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배근기	*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목	화, 목, 금	뇌졸중클리닉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목	월, 목			일 반			화, 목	월 화 수 목	만5세 이상 진료가능	
일 반		일반비뇨기		금										
산부인과 (☎2270)	이우영	*	부인과중양, 폐경기	화, (금)	(월), (목), 금	□여성암센터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	가족간강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간진센터	
	이병익	*	중앙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비만센터		이연지	*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금	월 (화), 목(수), 금(목)	△비만센터	
	송은섭	*	부인과중양	월, 화, 목	(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 (목), 금	화			국재진료센터(☎2080)	박홍재	*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연장진료 08:00~19:00
	박지현	*	주산기외학, 산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박정우	*	부인과중양	목	(화), 목, 금			통증치료실 (☎3921)	이두익	*	통증치료	화, 목	화	
정현재	*	산과, 내시경	화	월, 수, 금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여성암센터 Gynecology	이우영	*	부인과중양	금	월, 목		이미현		*	통증치료	월, 수, 목	수, 목		
	송은섭	*	부인과중양	화, 수	수		영상의학과 (☎2740)		김원홍	*	HIFU 조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 목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목	
	박정우	*	부인과중양		화, 금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외과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화, 목, 금	월 (화), 목 (목)	*사이버, 이프센터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치료인 환도 시도 응수
영상의학과 정신과	김중현	*	유방, 내분비외과	금			사이버 방사선 나이프 중앙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화, 금	화, 금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수)	◆암모니터링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내분비내과	이영호	*	불안장애		(화)	□중양스트레스클리닉	윤승환	*	척추, 척수, 원발성중양	화, 금	화, 금			
	홍성민	*	갑상선 검사		(화)	△갑상선초음파조각검사	핵의학과(☎3160)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소아청소년과 (☎2260)	손병관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만5세까지 소아내과		산업의학과 (☎2861)	임종한	*	환경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질환, 직업성질환		화, 목	
	홍영진	*	심장, 감염	수, 목	월	△비만센터	박신규		*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금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목		김환철	*	뇌, 신경과질환, 뇌, 언어장애, 뇌, 언어장애	월, 수	수			
	전용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금	화, 수		치과 (☎2470)	김일규	*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맥스	월 화 수 목 금 토	화, 목		
	임태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핵조직	화, 금	월, 수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금	◆임플란트클리닉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핵조직	월, 화	수, 금			윤정호	*	치주과	월, 목(△), 금	월, 화, 목		
권영세	*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월, 화	목, 금		장금수		*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목			
이지은	*	서양,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아동	수, 목	화, (목), 금	목(오) : 비만센터진료 14:00~16:00	손신정	*	보존과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반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금	월, 화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안과 (☎2400)	오중현	*	백내장, 녹내장	월, 화, 목	화	▲공기습응원료클리닉	응급의학과(☎2301)	김일규	*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맥스	월 화 수 목 금 토	화, 목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화, 금	수, 목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금	◆임플란트클리닉	
	진희승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월, 금			윤정호	*	치주과	월, 목(△), 금	월, 화, 목		
	강성모	*	안정형, 사시	월, 수	목			장금수	*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목		
김내래	*	녹내장, 백내장	금	월, 화		일 반			화, 목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반			목, 토	수, 금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토				
안과레이저(☎2400)	EYAL		레이저 클리닉	금	수, 목, 금				응급의학, 약물중독	월, 목	월, 목			

최첨단 암 치료기의 새로운 혁명! RapidArc & Cyberknife



RapidArc
Cyberknife

보다 빠르고 정확한 최신기술 방사선 치료장비 래피드아크

래피드아크는 21세기적 치료라고 각광받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IMRT)와 영상유도방사선 치료(IGRT)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기에 2007년 개발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종양의 모양에 따른 맞춤형 회전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무혈 | '로봇 사이버나이프'

실시간 종양추적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 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
www.inha.com

IGRT센터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방사선종양학과 032)890-3070 신경외과 032)890-2370